

보도일시	2022. 12. 21(수) 10:00	배포일시	2022. 12. 21(수) 10:00
담당부서	총무인사처 인사부	책임자	처장 이정문
		담당자	부장 최진백(061-338-6012)

공공기관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농어촌공사, 직무중심 보수체제 도입한다

-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책임경영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직무의 특성과 책임,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중심 보수체제(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4,800여 명(1~6급)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위해 5월부터 직무분석 및 등급평가 등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부서 공청회와 직무별 실무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직계·조직·직급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400여 명의 직무평가단을 구성해 직무별 난이도와 책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직계별 분리평가 진행으로 다수 직계와 소수 직계 간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11월 노동조합과 ▲직무가치를 반영한 등급체제 마련으로 생산성과 공정성 제고 ▲직무중심 인사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강구 ▲노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합의했다.

직무등급은 관리자 8등급, 부원 4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직무급이 정액 지급된다. 이로써 직급에 관계없이 수행업무의 난이도 및 노력 요구 수준에 따라 급여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직무급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직무 중심 업무배치와 순환근무, 직위공모제 활성화 등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직무급 제도 도입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조직문화 혁신의 첫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시작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효율적 인적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